

# 공무국의출장등 결과보고서

## 1. 출장개요

출장명	ICT 기술정책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해외출장	
출장기간	2025. 8. 10.(일) ~ 2025. 8. 15.(금) (4박 6일간)	
출장국	페루(리마)	
출장목적	페루 디지털경제와 신흥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단지 정책 이행 및 관리역량 강화 지원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과학산업전략본부	본부장	최병관

## 2. 출장내용

### 가. 요약

- 과학기술혁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 기관 간 MOU 체결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페루의 지역 과학, 기술 및 혁신 컨소시엄의 역량 및 디지털 서비스 강화와 관련된 후속 연계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기반 확장
- 페루 디지털경제와 신흥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단지 정책 이행 및 관리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현지 최종워크숍

### 나. 세부일정

월일시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주요 활동내용	비고
8/10(일)	인천	아틀란타	-	• 인천→ <sup>(경북)</sup> 미국(아틀란타) 이동	-
	아틀란타	리마	-	• 아틀란타→페루(리마) 도착	-
8/11(월)	리마	리마	국가과학기술 혁신위원회	• 페루 CONCYTEC 디지털경제와 신흥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단지 정책 이행 및 관리역량 강화 지원 현지 최종워크숍 • 정책자문 결과 발표 4건 및 질의응답	
8/12(화)	-	-	-	• 10:00 KOICA 페루 사무소 소장 면담 • 14:00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CONCYTEC) 1차 면담 → 2024년 보고서(phase 1) 피드백 및 질의응답	
8/13(수)	-	-	-	• 10:00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CONCYTEC) 2차 면담 → 페루 과학기술단지 중심 혁신 정책 공유 및 한-페루 협력방안 논의 • 14:00 DISTEP-CONCYTEC MOU 협약식 • 리마 출발 (23:20)	
8/14(목)	리마	아틀란타	-	• 아틀란타 도착 (07:05) • 아틀란타 출발 (12:40)	-
8/15(금)	아틀란타	인천	-	• 인천 도착 (16:50)	-

### 3. 출장 세부내용

#### 가. 최종워크숍

방문개요

- 일 시: 2025년 8월 11일(월) 9:30 ~ 17:00
- 장 소: CONCYTEC
- 참석자: 총 25인

순번	소속	이름	직위	참여 형태
1	CONCYTEC	Dr. Sixto Sanchez	President	Onsite
2	CONCYTEC	MSc. Carlos Mondragón	President's Advisor	Onsite
3	CONCYTEC	Dr. Víctor Izaguirre	Director of Policies and Programs of CTel	Onsite
4	CONCYTEC	Dr. Karina Maldonado	Deputy director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Onsite
5	CONCYTEC	MSc. Miguel Rodriguez	Specialist of the Subdirectorate of Science, Technology and Talents	Onsite
6	CONCYTEC	MSc. Rocío Casildo	Head of Technic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Affairs	Onsite
7	CONCYTEC	Atty. Maria Carolina Millan Zuzunaga	Specialist at the General Legal Advisory Office	Onsite
8	CONCYTEC	Eng. Martín Quintana Saldarriaga	Coordinator of Public Investment Project	Onsite
9	CONCYTEC	MSc. Jose Selem Novoa	Coordinator of Modernization and Quality Management	Onsite
10	PCM	Sandra Manco Menéndez	Head of OPMI for the PCM Sector	Onsite
11	PCM	Guido Arevalo Navarro	Multi-Year Investment Programming Coordinator	Onsite
12	PCM	Mario Torres Guerrero	Public Investment Specialist	Onsite
13	PRODUCE	Nilo Kenji Alex Avila	Director of Innovation	Onsite
14	PRODUCE	John Elvis Romero Conde	Specialist	Onsite
15	PRODUCE	Alberto Maurer	Adviser	Onsite
16	MINEDU	María del Carmen Mendivil Colpaert	Head of the Programming and Investment Unit	Onsite
17	MINEDU	Junior Raúl Soto Huamán	Senior Investment Management Coordinator	Onsite
18	MEF	Erick José Asenjo Baca	Director of the Directorate of Public Investment Policy and Strategies	Onsite
19	MEF	Víctor Federico Cueva Herold	Programming and Articulation Executive	Onsite
20	KISDI	김지원	Associate Research Fellow	Onsite
21	KISDI	서소영	Associate Research Fellow	Onsite
22	한밭대학교	서준석	Professor	Onsite
23	한국화학연구원	고영주	Principal Researcher	Onsite
24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최병관	Vice President	Onsite
25	Translator	박지하	Interpreter	Onsite
26	국민대	홍성걸	Professor	Online
27	지역산업입지연구원	홍진기	원장	Online

## □ 주요내용

- 금번 최종워크숍을 통해 페루의 STP를 도입하고 성장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함
  - KISDI 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Concytec은 페루의 법 제도를 살펴보고 페루 대학과의 기술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평가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행한 바 있음
  - 한국의 경험과 기반한 전략과 제안을 듣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함
- STP는 디지털경제와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도구로 생각하고 있으며 STP는 지식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임
  - 다양한 부처와 부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함
- 농업대학과 아레키파 대학에서 운영하게 될 과학기술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됨

### <발표 1: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Framework of STP and Resetting the Peruvian STP Roadmap\_홍진기 원장 관련 질의응답>

- 한국에서 STP 관련 설립기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첫 단계에서도 기준이 높았는지? 페루에서 더 낮은 수준의 설립기준을 지정할 수 있는지?
  - 한국의 5개 이노폴리스가 지정된 이후 추가 지정케이스가 없는 이유는 한국의 엄격한 설립기준 때문; 한국정부는 이노폴리스의 추가지정이 어려워지자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노타운을 설립했으며 이노타운은 이노폴리스보다 지정요건이 낮음
  - 한국이 이노폴리스, 이노타운 지정건수가 많아질수록 예산소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 측면을 고려해야함. 현재 한국은 이노타운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여력이 2개가 남아있는 상황임
  - 자격을 갖춘 STP를 선정하고 예산 지원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STP성공의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함
- 컨시텍은 산업단지과 이노폴리스, 이노타운의 연계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기업이 어떤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국의 사례를 요청함
  - 한국은 대전을 중심으로 조성된 반면 페루는 산업단지의 개발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들과 대학이 협동 연구하는 페루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 페루의 산업단지과 한국의 차이로서 한국은 공공부문(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완벽한 산업인프라를 기업들에게 제공함
- 페루가 기업활동을 하기에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실정
- 산업단지가 필요한 이유는 기술이전이 필요한 기업들이 모여있어야 하기 때문임
- 한국에서는 기업이전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수요조사를 하고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컨시텍은 산업단지에 협업하는 민간기업의 참여수준은 어떤지?, 대학과 기업의 연계한다면 사립대학도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요청
- 한국의 산업단지에 기업들의 참여수준은 높은 수준은 아님. 중소기업 중에서 삼성 현대 엘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주문을 받아 협력하는 중소기업은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 대기업과의 종속적인 관계에 탈피하여 독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학과의 협력에 참여하고 있음
- 이노타운 사업에 참여하는데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의 차별은 없음
- 페루 생산부는 지역산업입지연구원의 규모, 인원,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
- 산업연구원 직원은 200명 정도, 박사학위 소지자는 120명임

<발표 2: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STP in Peru and South Korea\_홍성걸 교수 관련 질의응답>

- 평가 최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 현재 이노폴리스와 이노타운의 기준이 최소 기준이며 이 기준을 평가해서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평가 기준은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이에 대하여는 앞의 홍진기 박사 발표 참조)을 참고하고 페루의 현실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페루 정부나 CONCYTEC의 지원 능력(공급기준)을 고려하여 첫 단계에서 상위 몇 개의 STP를 선정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을지를 고려해 평가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함
- 선정된 STP의 경우에도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 지원과 다음 단계로의 도약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지정된 STP들의 성과를 평가해야 함.
- 한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초 STP(혹은 R&D 특구)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 평가뿐만 아니라 3년, 5년 등 주기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이 때 CONCYTEC은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중간평가와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들은 평가 로드맵을 통해 사전에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정된 STP의 관리운영 주체들이 사전에 목표를 인지하고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아 지속적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임

<발표 3: Enhancement Strategy for STP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_서준석 교수 관련 질의응답>

- 페루는 지방 산맥에 위치한 대학에 인큐베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진행 중임. 교수님께서 지역과 대학간 협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STP 발전의 모든 부분에 기울이는 노력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제언에 동의함
- 페루에서는 대학 차원에서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역할도 하고 있음. 대학이 전략분야에 대한 기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방안은?
  - 인큐베이션과 액셀러레이터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려면 정부, 대학과 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함
  - 민간과 기업이 참여할 때 대학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
- 페루의 법제도는 협업을 진흥한다기 보다는 규제하는 역할이 큰 것 같음. 한국의 사례는?
  - 이노폴리스는 2005년 혁신클러스터로 바꿀 때 특구 위원회를 만들고 특구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과학기술부 장관 뿐만 아니라 산업부, 교육부, 건설부, 환경 등 6개 장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 이 장관들이 이노폴리스 시행을 위한 위원으로 참여하여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각 부처가 해결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속도 있게 추진한 바 있음

<발표 4: Activating Peru's STPs through Technology Transfer and Startups in STP 관련 질의응답>

- 2005년 특구 만들기 전에 3%, 최근에는 4~5% R&D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R&D를 하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페루는 오히려 정부가 R&D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기업이 R&D를 할 경우 세금혜택이 크고 정부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지원할 때 기업, 대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줌

- 예를 들어 기업이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소요비용이 10억이 된다고 하면 공동연구의 경우 기업의 부담비용은 1~2억 정도 수준
- 화학연구원의 경우 150여개 패밀리기업이(MOU로 연계) 있는데 자주 미팅을 통해 아이디어를 드리고 협력하고 있음
- 화학연구원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컨택하므로써 성공사례가 만들어지고 성공사례를 보고 후발주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 한국의 육성산업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므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면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
- 정부가 중소기업이 만든 물건이나 기술을 구매하여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요소임
- 실제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 개발의 경우에는 인식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기술이전에 있어서 지적재산권도 연관이 있을 텐데 논문 게재가 얼마나 중요도를 갖고 있는지? 지적재산권의 중요도는 어떤지? 한국은 어떤 식으로 중요도를 배분하는지?
- 연구소의 경우 STP 이전에는 기술료의 개념이 없었음
- 논문점수 10점, 특허점수 30점, 기술료 60점으로 배분되었으나 최근에는 STP 이후 기술출자하여 연구소 기업을 만들거나 사업화를 직접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음
- 연구소는 기술을 기업에 제공하다가 연구소 기업과 창업에 대한 혜택을 주기 시작함
- 대학은 논문점수 비중이 높으나, 정부에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산학협력한 경우 지원해주는 펀드가 증가하고 있음

#### <폐회>

- STP를 이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페루에서 보다 더 명확한 거버넌스가 필요함, 이러한 기본적인 거버넌스의 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CONCYTEC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조율을 긴밀하게 이뤄나가야할 부분임
- 여러 참여자들의 인적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
- 성공을 이뤄내는 개발생태계의 인적자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갖추는 것이 필요
- STP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본 사업으로 나아가면서 결과물을 내는데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
- STP 성공을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이 필수적

## 나. KOICA 페루 리마 사무소 소장 외 면담

### □ 방문개요

- 일 시: 2025년 8월 12일(화) 10:00 ~ 12:00
- 장 소: KOICA 페루 리마사무소
- 참석자: 총 7인
  - KOICA 리마사무소 김영우 소장, 강모근 부소장, KISDI 김지원 부연구위원, 서소영 부연구위원, 한밭대 서준석 교수, 한국화학연구원 고영주 책임연구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최병관 본부장

### □ 주요 내용

- 과기정통부 ICT 기술정책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24~2025년 2년간 페루 CONCYTEC과 페루 신흥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단지 구축 방안 사업 수행 중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대전시 출자 출연기관으로서 대전시에 출연연구기관이 많기 때문에 연구기관과 기업을 상호 산업적으로 어떻게 연계시킬지 과학산업을 기획,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페루의 지역 STI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CONCYTEC에서 제안한 바 있음. 외교부 심의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26년 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27년 사업으로 재추진을 고려 중
- KOICA 페루사무소 ICT 부문 진행상황
  - 전자정부 사업으로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이민청 관련 사업, 폐광 현황을 시스템화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수행 중
  - 전자문서사업은 PC용역까지 선정, 시스템이 구축하는 단계
  - 이민청 사업은 올해 착수되는 사업이며 수행사 선발을 앞두고 있으며 입찰이나 조달을 준비하는 절차(실제 착수는 25년 말 또는 26년 초)
  - 폐광 시스템은 감리하는 마지막 단계
- 시스템은 설계, 감리, 구축 단계로 분류되는데 실제 사업수행은 PMC라는 관리사업자, PC(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수행함
  - 26년 사업으로 확정된 외교부 영사 관리시스템은 페루 재외국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임
- 한-페루 협력사업 장단점
  - 페루와 한국의 외교적 관계가 긴밀하다는 장점
  - ICT 키워드 사업들은 국내 기관들의 수요를 통해서 세부 사업을

발굴, 국내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기획하고 있음

- 대형사업에 ICT 사업이 요소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다수(문화부 부동산, 문화유산 플랫폼 구축 사업, 보건부 취약계층, 원격의료 시스템 지원)
- 페루에서 한국에 기대하는 협력사업은 IT 관련 사업이며 한국이 갖고 있는 IT 성공사례와 메리트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 페루에서 한국의 기업이(KT net) 전자무역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던 사례 있음
- 페루에 EDCF 사업이 없는 이유는 페루 정부가 EDCF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이며 페루 정부는 재정을 다변화하는데 관심이 없음
  - 페루와 무상원조기본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 통상적으로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이 800~1000만불 규모이며 사업 기간은 5년 정도 소요됨
- 한국은 GDP 대비 ODA 사업 비율이 중하위군 수준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증가함. 국제사회에서 사업비율은 0.7%를 이야기하나 강제는 아니며 잠정적으로 0.25~0.3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는 0.2% 수준임(KOICA 6조, 무상원조의 50%, 전체의 30%)
- 페루 내 아시아 국가의 ODA 현황 관련
  - IDB 예산을 받은 라몰리나 대학을 실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이 출자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임
  - 페루 내 중국의 주재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시아 지역의 ODA 비중은 중국과 일본이 높은 편

## 다. CONCYTEC 2차 면담

### □ 방문개요

- 일 시: 2025년 8월 12일(화) 15:00 ~ 18:00
- 장 소: Concytec
- 참석자: 총 10인

순번	소속	이름	직위	참여 형태
1	CONCYTEC	Dr. Sixto Sanchez	President	Onsite
2	CONCYTEC	Dr. Víctor Izaguirre	Director of Policies and Programs of CTeI	Onsite
3	CONCYTEC	Dr. Karina Maldonado	Deputy director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Onsite
4	CONCYTEC	MSc. Rocío Casildo	Head of Technic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Affairs	Onsite
5	KISDI	김지원	Associate Research Fellow	Onsite
6	KISDI	서소영	Associate Research Fellow	Onsite
7	한밭대학교	서준석	Professor	Onsite
8	한국화학연구원	고영주	Principal Researcher	Onsite
9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최병관	Vice President	Onsite
10	Translator	박지하	Interpreter	Onsite

### □ 주요 내용

- 컨시텍에서 다시 뵙게 된 것을 환영하며 2024년 보고서 리뷰를 위한 미팅에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함
  - 함께 노력해온 사업을 1차 결과물로 보게되어 큰 기쁨이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이어갈지 창업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이 내용에 STP를 구축하는 가이드라인과 시스템들을 잘 보여주고 계심
  - 총리실과 생산부, 교육부 등에 보고서 결과를 전파해서 정부의 지원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챗터 1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Framework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페루 STP 지정 기준 보완 필요성 강조, 정량적 요건 도입 필요성 제시
  - 연구기관·산업단지 간 거리 규정 명확화, 스타트업 입주 공간 포함 필요성 제시
  -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 STP 수 지정 및 단계별 로드맵 제안

- 지역 및 대학별 STI 역량 분석을 통한 후보지 선정 평가
- 한국의 이노폴리스 지정 요건 및 발전 경험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
- 챕터 2 STP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페루 STP 성과평가 체계 필요성 및 한국 대덕연구단지 사례 제시
  - 혁신역량·기술사업화 성과·인큐베이션 활동을 주요 지표로 제안
  - 지역 특성 반영한 단계별 지표와 표준화된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강조
  - 초기 STP에는 성과 데이터 추적과 운영 안정화 기간 필요성 설명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 제시
- 챕터 3 Activating STPs through TT and startups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TP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술이전과 스타트업의 중요성 강조
  - 기술이전 모델과 창업 모델을 연계한 다양한 혁신체계 설명
  - 페루의 기술이전 정책, StartUp Perú 등 지원 프로그램 소개
  - 거버넌스·재원·관리 체계의 미비점과 개선 필요성 분석
  - 한국·영국 사례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핵심 요소(목표, 전략, 거버넌스, 자금, 관리) 제안
- 챕터 4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STPs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STP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페루 법제 정비 방향 제시
  - CONCYTEC의 법적 권한 강화와 재정·기술적 인센티브 확보 필요성 강조
  - STP 지정 요건과 절차의 법적 명문화 필요성 제시
  - 중앙·지방정부 역할 분담과 재정 책임 명확화 필요성 강조
  - 독립적 평가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규제완화·세제혜택의 법적 보장 필요성 제안
- 최종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함
  - 주요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됨, 각 과제들이 개별단위의 프로젝트로 추진해야하며 사업화하는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

- (평가 관련) 보고서에서 평가분야의 중요측면과 관련 컨시텍 혼자  
가 아니라 참여하는 주요 관계자들과 조율하며 진행해야하는데  
STI 전담기관이 필요하며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이해함
- (지방정부 참여) 지방정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음. 지자체들과 협력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성과평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평가대상과 평가방법에 대한 이  
해를 하게 되었음. 성과지표 선정의 중요성을 이해함.
- (로드맵) 로드맵별로 성과를 다르게 설정해야한다는 것을 이해함
- (기술이전의 활성화) 페루에 여러 혁신시스템들이 있는데 기술이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기술이전 분야의 역량이 국가 차원에서 강  
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인지. 이 부분 관련 한국도 협력해주시길  
바람
- o 작년 보고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관별로 전파하겠음. 페루는 STP  
도입을 노력하고 있으나 보고서를 통해 범부처 협의체 구성의 중요  
성을 파악했으며 대학 관계자, 기업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논의할 예정임
- o 보고서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에 감사드립니다. Phase 2는 연말에 내년  
초까지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임. 오늘 논의하지 못한 보고서에 대  
한 피드백은 서면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실 것

**라. CONCYTEC 3차 면담 및 MOU 체결**

방문개요

- o 일 시: 2025년 8월 13일(수) 10:00 ~ 16:00
- o 장 소: Concytec
- o 참석자: 총 10인

순번	소속	이름	직위	참여 형태
1	CONCYTEC	Dr. Sixto Sanchez	President	Onsite
2	CONCYTEC	Dr. Víctor Izaguirre	Director of Policies and Programs of CTeI	Onsite
3	CONCYTEC	Dr. Karina Maldonado	Deputy director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Onsite
4	CONCYTEC	MSc. Rocío Casildo	Head of Technic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Affairs	Onsite
5	KISDI	김지원	Associate Research Fellow	Onsite

6	KISDI	서소영	Associate Research Fellow	Onsite
7	한밭대학교	서준석	Professor	Onsite
8	한국화학연구원	고영주	Principal Researcher	Onsite
9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최병관	Vice President	Onsite
10	Translator	박지하	Interpreter	Onsite

#### □ 주요 내용

- (Dr. Sixto) 한국에서 방문한 대표단을 환영하며 최종 워크숍을 개최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함,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온 나라는 한국이 처음임
  - 양 국가간의 한-페루 기업 및 대학간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큰 형님처럼 한국의 노하우를 배울 것임
- (Dr. Sixto) KISDI는 Concytec과 처음 협력함에도 불구하고 Concytec의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음. Concytec이 그간 프로젝트와 관련 데이터수집, 인터뷰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함
  - 상호협력이 되어야하는데 이번 사업 경험을 통해 프로젝트 운영이 매우 수월했고, Concytec과 장기적인 협력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함
- ① 페루의 STI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범부처 위원회를 재활성화할 것임(12개 부처 참여), ②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 22개 주정부 대표단과 8월 22일 대화가 있을 것. ③ STI 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각 주정부의 STI 설치를 논의하게 될 것, 국립 및 사립대학에 연구 담당 부총장 등 고위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할 예정. ④ STI 설치과 관련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기업 분야들의 대표들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
- 범으로 지정되지 않은 STI 활동들, STI의 공식적인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2가지 측면이 상호작용해야함
  - STI 설치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과 법제도 수립도 중요하며, STI의 근본적인 활동들(인큐베이션을 통한 지원)에 집중하여야 함, 초기 소규모에 STP라고 할 수 있는 인큐베이션 센터, 창업보육시설들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

- 법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소규모 인큐베이션이 조성되고 STI 핵심 활동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핵심성과물(특허, 기술사업화, 기술이전)이 나오는 경우가 있음
- 한국의 STP는 이노타운이라는 예시를 제시해드린 것이고 STP의 지정, 지정요건, 운영, 성과평가를 거친 다른 예시로서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음
  - 현재 페루에는 이노타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드렸으나 이노타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의 테크노파크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형식의 STP를 고려해주시길 바람
- 페루 STP가 페루의 STI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일 것이며 CONCYTEC이 중추가 될 것으로 기대함. 페루 STI가 페루 국가성장에 핵심역량이 될 방안에 대해 제안함
  - 범정부위원회를 가동하여 부처간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페루의 STP 발전 20년 계획을 세워 5년씩 로드맵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제안함
  - 정책으로 형상화 하는 것을 CONCYTEC의 일이고 정책을 이행하는 것을 공동으로 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이 적절
  - 지방정부 협의체 구성 관련하여 로드맵이 수립되면 지역에 전파를 하고 지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전체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연계하는 작업이 중요. 지역에서 실행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부가 활동들이 파생될 수 있을 것. 지역의 획일화된 활동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이 구체화될 것
  - 한국의 후속협력 관련하여 페루의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투자하거나 기술사업화하는 의지와 역량을 키우는 작업을 중요. 중요한 기업의 대표들을 채용하여 한국과 기술로 성공한 기업과 비즈니스 하는 것을 지원, 페루-한국간 기업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대학의 경우 한국의 연구소와 계약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들을 찾아서 연구 교류협력을 하고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
  - STP에 좋은 스타트업 중에 실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전이나 한국 스타트업이 페루에 와서 협력하는 것이 가능

- 산학협력 연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음. 이번달 27일에 연구부총장님들과 대화하는 세션을 가질 예정. 가능하시다면 한국 측에 전문가가 화상으로 참여하셔서 한국의 시스템, 산학연계의 사례와 내용을 공유해주시는 것을 제안함(영어로 하시면 스페인어 자막 제공 가능)
  - 기업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면 공식적인 대화와 방향은 정합성이 있다가 각 주체별로 추진속도와 단계가 다르게 추진됨
- 26년 사업은 외교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음. KISDI는 정책실증랩이라는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8월에 진행하게 될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람
- 페루의 해양연구원이 참여하여 홍합양식 사업이 선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에서 KISDI가 참여할 수 있는지?
  - 학술적인, 공학적인 내용이 주가 될 것이므로 불가
- (Dr. Sixto) 협력을 할 때 거버넌스 측면에서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페루의 현실에 맞게 파일럿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기업, 학교와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화하고 있음
  - 정성적인 측면에서 결과가 나오면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서준석교수) 법으로 지정되지 않은 STI 활동들, STI의 공식적인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2가지 측면이 상호작용해야함
  - STI 설치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과 법제도 수립도 중요하며, STI의 근본적인 활동들(인큐베이션을 통한 지원)에 집중하여야 함, 초기 소규모에 STP라고 할 수 있는 인큐베이션 센터, 창업보육시설들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
  - 법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소규모 인큐베이션이 조성되고 STI 핵심 활동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핵심성과물(특허, 기술사업화, 기술이전)이 나오는 경우가 있음
- (서준석교수) 한국의 STP는 이노타운이라는 예시를 제시해드린 것이고 STP의 지정, 지정요건, 운영, 성과평가를 거친 다른 예시로서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음
  - 현재 페루에는 이노타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드렸으나 이노타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의 테크노파크나 창조경제혁신

센터 등 다양한 형식의 STP를 고려해주시길 바랍

- (고영주책임) 페루 STP가 페루의 STI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일 것이며 CONCYTEC이 중추가 될 것으로 기대함. 페루 STI가 페루 국가성장에 핵심역량이 될 방안에 대해 제안함
  - 범정부위원회를 가동하여 부처간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페루의 STP 발전 20년 계획을 세워 5년씩 로드맵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제안함
  - 정책으로 형상화 하는 것을 CONCYTEC의 일이고 정책을 이행하는 것을 공동으로 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이 적절
  - 지방정부 협의체 구성 관련하여 로드맵이 수립되면 지역에 전파를 하고 지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전체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연계하는 작업이 중요. 지역에서 실행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부가 활동들이 파생될 수 있을 것. 지역의 획일화된 활동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이 구체화될 것
  - 한국의 후속협력 관련하여 페루의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투자하거나 기술사업화하는 의지와 역량을 키우는 작업을 중요. 중요한 기업의 대표들을 채용하여 한국과 기술로 성공한 기업과 비즈니스 하는 것을 지원, 페루-한국간 기업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Dr. Sixto) 산학협력 연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음. 이번달 27일에 연구부총장님들과 대화하는 세션을 가질 예정. 가능하시다면 한국 측에 전문가가 화상으로 참여하셔서 한국의 시스템, 산학연계의 사례와 내용을 공유해주시는 것을 제안함(영어로 하시면 스페인어 자막 제공 가능)
  - 기업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면 공식적인 대화와 방향은 정합성이 있다가 각 주체별로 추진속도와 단계가 다르게 추진됨
- (Dr. Kim) 2026년 사업은 외교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음. KISDI는 정책실증랩이라는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8월에 진행하게 될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랍
  - 페루의 해양연구원이 참여하여 혼합양식 사업이 선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에서 KISDI가 참여할 수 있는지?

- (Dr. Sixto) 협력을 할 때 거버넌스 측면에서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페루의 현실에 맞게 파일럿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기업, 학교와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화하고 있음
  - 정성적인 측면에서 결과가 나오면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4. 시사점 및 결과활용 계획

- 한-페루 과학기술 협력 기반 강화
  - CONCYTEC와의 MOU 체결 및 연속적인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과학기술 정책 및 혁신 역량 강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단순한 제도 수입이 아니라 페루의 현실(재정·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점진적·맞춤형 적용 필요성이 논의됨
- 국제 공동사업 발굴
  - KOICA, NIA, KISDI 등과 연계하여 2027년 ICT ODA 후보사업을 구체화.
  - 한-페루 공동 연구·실증 사업(예: 디지털경제 플랫폼, 지역 STI 컨소시엄)을 발굴하여 국제 협력 사업으로 추진

위와 같이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작성 자 : 최병준 (서명 또는 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